■ 대입 정시모집 지원 전략

대학별 점수 유·불리 확인 2곳 '안정' 1곳은 '도전'을

201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한철민(사진·승덕고) 교사의 도움으로 정시지원 전략과 주의점을 살펴봤다. <표준점수 및 대학별 점수표 13면>

◇상위권 대학 눈치 작전 치열할 듯=2010학년도 대입은 지난해에 비해 수능응시 인원이 6만 5천명이 증가함에 따라 동점자가 많아지면서 상위권 대학에서 고득점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작년과 비교해 쉬운 수능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변별력 약화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학과까지도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험생은 내신을 포함해 대학별 점수를 중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지원했을 때의 유불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상위대학은 수능 성적이 좌우=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성적 우선선발전형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내신보다 수능성적이 높은 수험생들이 유리하다.

아울러 2010학년도 정시의 중요한 특징으로 ▲전년 대비 모집인원의 감소와 학과별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수능 수리영역의 교차지원 가능 ▲일부 대학의 분할 모집 폐지 등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서접수 하기 전 이것만은 점검=먼저 가·나·다군 중에서 적어도 2곳 이상을 '안정'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모집단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시 가·나·다군에 최종 원서를 넣기 전 이번 정시 모의지원의 경향도 점검해야 한다. 모든 대학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받는만큼 경쟁률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학 진학에 대한 기존 목표대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안정'지원을 목표로 최초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욕심을 더하다 보면 3개 군 모두를 '도전' 지원하게 된다. 1개 군을 '안정'에서 '도전'으로 바꾼다면 다른 군에서 1개 군을 '안정'지원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다만 다군은 모집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안정'지원을 다군에 넣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불합격할 수도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30주년 준비위 발족

"기획단계부터 시민 참여 확대"

제3세계 민주인권운동 지원사업도 전개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계기로 제3세계 민주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80년 당시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보내준 연대와 지원을 인권이 낙후된 국가들에 되돌려주기 위함이다.

특히 역대 기념행사 가운데 관행적으로 치러왔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폐기·통폐합하고, 5·18의 가치를 재정립해 시민 주도 아래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7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서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는 시민 기획과 참여가 기본이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고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또 5·18 민중항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30주년 기념행사의 기조로 ▲5·18에 대한 재정립과 새로운 담론 제시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에 기여 ▲남북 화해협력 기여 및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5·18 행사 등을 들었다. 아울러 현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인권이 낙후된 국가들의 인권운동가들을 초청하는 등 제3세계 민주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30년'이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5·18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대 흐름과 대중정서에 맞는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광주시 각 구(區)별 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 구와 동(洞)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지난 30년을 제대로 돌아본 뒤, 5·18 민중항쟁이 역사와 함께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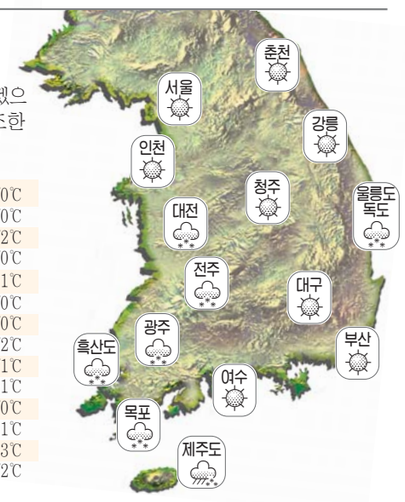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5분 해짐 17시 23분 달뜸 08시 53분 달짐 18시 52분

빙판길 운전조심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나 여수와 보성 등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 주	흐리고 눈	−5/0℃
목 포	흐리고 눈	−3/0℃
여 수	맑음	−3/2℃
완 도	흐리고 눈	−2/0℃
구 례	흐리고 눈	−6/−1℃
해 남	흐리고 눈	−4/0℃
장 흥	흐리고 눈	−4/0℃
고 흥	맑음	−3/2℃
순 천	맑음	−4/1℃
영 광	맑음	−5/−1℃
진 도	맑음	−3/0℃
전 주	흐리고 눈	−6/−1℃
남 원	흐리고 눈	−8/−3℃
흑산도	흐리고 눈	0/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1.0~2.5m

	밀물	썰물
목포	02:38 15:33	08:06 20:51
여수	10:17 22:04	03:34 16: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날 씨						
최저/최고	−5/1	−4/2	−2/5	−2/8	−1/10	1/11

'임을 위한 행진곡' 그대로 불린다

보훈처, '5·18 노래 국민공모' 여론 밀려 중단

국가보훈처가 최근 추진해온 '5·18 기념노래 국민공모 사업'이 지역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중단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에 보낸 '5·18 기념노래 국민공모 중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기념노래 공모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5월 단체가 제출한 '5월의 노래 공모 재고 요청'과 광주·전남 지역사회 여론, 국민정서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 (공모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어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이 민주·정의·인권 존중의 숭고한 5·18 민주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5월 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기념식에 사용될 공식 추모곡을 제정하기로 하고, 5월 단체들의 동의를 얻어 가칭 '5·18 기념노래' 국민공모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민중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하려는 계략일 뿐"이라는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국민 여론조사는 일정대로 추진하되, 5·18 공식 추모곡 국민공모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전남대 로스쿨 학술·실무교류 협약

광주지법과 전남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학술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

광주지법과 전남대 로스쿨은 17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정갑주 지법원장과 김윤수 총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요 판결이나 각급 법원의 최신 판결 등의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은 연구논문과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이나 의견을 제공하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